

京城圖書館略史

李 鴻 球

京城圖書館이란 오늘날 서울 市立 鍾路圖書館이다. 只今으로부터 45年前(1919年)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이 只今은 보잘것 없는 이 古屋에서 始作되었다. 그것도 個人의 힘으로.

圖協은 第1回 圖書館週間에 李範昇氏에게 感謝狀을 授與하였다(도월필보 4월호 참조). 여기 文獻을 通하여 當時의 事情을 알아보기로 한다. —編輯室—

1919年 京城圖書館이 設立되기 以前에 우리나라의 港口都市 釜山을 爲始하여 몇 군데에 이미 圖書館이 있었으나 이것은 學皆 日本人들의 손에 依해 設立되었고 또 自己네 日人들만을 爲한 讀書俱樂部 形態의 文庫였으며 1906年에 서울의 大韓圖書館과 平壤의 大同書觀이 우리의 손으로 設立되었다 그러나 現代的 圖書館奉仕 機能을 發揮할수 있는 規模를 가추었던 公共圖書館으로써 오늘까지 存續되고 있는 것으로는 京城圖書館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하겠다.

京城圖書館은 至愚 李範昇氏가 1919年 9월에 서울의 파고다公園 一週에 設立한 것으로서 現任의 鍾路圖書館의 前身이다. 그때는 三·一運動의 直後라 總督의 武斷政治가 文化政治로 바뀌려던 때임을 利用하여 當時의 朝鮮總督府로부터 公園敷地 531坪과 同地上 建物인 舊韓國軍樂隊가 使用하던 韓式 瓦家 및 軍樂隊宿所等을 貸與받아 開館하게 되었다. 始初에는 얼마 안되는 圖書와 日刊新聞(新聞이배야 每日 申報 하나 밖에 없었다고 하며 東亞·朝鮮은 翌年인 1920年 1월에 創刊되었음) 및 雜誌等을 모아 閱覽시키는 程度였다고 하며 그後 漸次로 많은 私財를 들여 事業을 擴張시켰다. 그러나 前記 建物들은 本來

가 圖書館을 目的으로 建築한것이 아닐뿐 만 아니라 너무도 狹小하여 事業의 擴張에 따라 圖書館으로 쓸 수 있을만한 新建築物의 增築이 切實이 要請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建築費의 調達에 勞心하던 中 當時 韓國의 甲富이며 徵文義塾(現徵文中學校)의 設立者인 閔泳徽氏가 그때 扈壹萬圓을 快擲하여준 것을 爲始하여 朝鮮教育會 및 其他 人士들로부터 若干의 喜捨와 銀行貸付를 얻어 1922年 가을에 着工하고 翌 1923年 6월에 130餘坪의 石造建물을 竣工하였다. 이 建物は 現存하거니와 規模는 적을망정 閱覽室·書庫·出納室·新聞雜誌室·休憩室等을 갖춘 圖書館建物로서는 最初의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그때 閔泳徽氏가 李範昇氏에게 선사한 親筆의 額字가 있으니 그 文面을 그대로 여기에 紹介한다.

寄京城圖書館長李君範昇

僕老矣雖與世其相疎苟聞有實效於人者喜不自勝也 況以左圖右書啖英咀華能殖人之知而增人之識者爲加惠於斯世耶 自君之創立圖書館也其藏在銀行秘書不啻以萬卷五車計而閱覽者日五百餘人云其實效之潛滋於學界者願不大歟 僕於本館雖曾投資而贊其業耳 然君且勉旃益質古今書籍

之可以精華入神而能變化氣質者使閱覽之際油然有超凡入聖之志則其游於藝成其器之大效孰有加於是耶 君其圖之北爲老夫眷眷之望也

歲在癸亥之復月下弦
荷汀七十二翁泳徽

그해 7월 28日에는 落成式을 盛大히 舉行하고 本格的인 運營에 들어갔으니 그때의 運營狀況을 記錄에 依하여 그 一部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入館者現況(1923年度事業報告에 依함)

| 月別 | 區分 | 入館人員 | 閱覽冊數 | 備 | 考 |
|----|----|-------|--------|--|---|
| 4 | 男 | 3,220 | 3,350 | | |
| 5 | 男 | 3,024 | 3,301 | | |
| 6 | 男 | 1,083 | | 激減한 理由는 11日서부터 休館한데 있음. (註. 7月末까지 新館에 移徙하여 整理함) | |
| 8 | 男 | 3,087 | 5,011 | | |
| | 女 | 13 | | | |
| 9 | 男 | 4,972 | 7,816 | | |
| | 女 | 16 | | | |
| | 兒童 | 1,280 | 1,259 | 처음으로 兒童館을 開館하다. | |
| 10 | 男 | 4,816 | 8,293 | | 兒童의 閱覽冊數가 그 人員數에 比하여 적은 것은 雜誌만을 閱覽한 者가 多數인 까닭 |
| | 女 | 9 | | | |
| | 兒童 | 1,257 | 706 | | |
| 11 | 男 | 6,360 | 12,267 | | 前欄과 같음 以下各欄 同 |
| | 女 | 9 | | | |
| | 兒童 | 1,493 | 969 | | |
| 12 | 男 | 8,144 | 14,463 | | 嚴冬인데도 不拘하고 10時 開館前에 3, 4百人이 門外에서 長蛇陣을 이루고 開館을 기다리는 形便이나 約半數밖에 收容하는데 不過하다. |
| | 女 | 19 | | | |
| | 兒童 | 1,603 | 1,283 | | |
| 1 | 男 | 7,563 | 12,649 | | 前欄과 같음. |
| | 女 | 35 | | | |
| | 兒童 | 1,388 | 1,052 | | |
| | 男 | 9,164 | | | |

| | |
|-------------|-------------------------|
| 나. 1日平均入館人員 | 54人強 |
| 3. 日本人入館人員 | |
| 가. 一般人 | 3,680人 {男 3,672 女 8} |
| 나. 兒童 | 360 |
| 計 | 4,040 |

위의 表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8月 以後는 石造本館落成에 따라 事業이 一層活氣를 띄고 隆盛하여졌거니와 單純히 圖書閱覽에만 置重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附帶事業도 實施하였으니 記錄대로 移記하면 다음과 같다.

1. 兒童閱覽室은 小學校의 授業時間을 參酌하여 午後에 開館하므로 午前에는 이를 利用하여 貧民兒童 30餘名을 모아 2個年 卒業豫定으로 日語·國語·算術 等を 教授하다.

2. 閱覽兒童에게는 때때로 標本·掛圖及 理化學機具를 備置하고 常識을 주기 爲하여 談話 又は 實驗을 하다.

(筆者 註, 當時 無線電話機를 日本으로부터 購入하여 實驗시켰다함)

3. 每日曜日 밤에는 童話會를 開催하고 一般兒童들에게 童話を 들려주고 또 月 1回 以上 幻燈·活動寫眞會及 레코드·콘서트를 開催하여 慰安을 주고 必要에 應하여 市民으로서의 知識을 涵養하도록 禮儀 법절을 가르치다(筆者註, 童話會에는 小波 方定煥氏·丁洪教氏等이 演士로 많은 活躍을 하였다함).

4. 夜間에는 朝鮮女子青年會에 兒童室을 無料로 貸與하여 서로 提携하고 學校 못 다닌 舊家庭의 婦人들에게 新教育을 實施하며 每 土曜日 밤에는 婦人講座를 設置하여 婦人들에게 適合한 學術·衛生·家事等 講座를 實施하다. 同時에 家事·衛生等 必要한 事項을 油印物로 만들어

無料로 配付하고 月 1回以上 幻燈·活動寫眞會及 레코드—콘서트를 開催하여 慰安을 주어 一般婦人의 智的인 向上을 圖謀하다(筆者註, 申알베트 女史가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함. 그리고 映畫 및 音樂鑑賞會는 兒童과 婦人을 同時에 集合시키고 實施한듯하다). 또 1924年度 事業報告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있다.

| | | |
|------|--------|--------|
| 夜學部 | {學級數 | 5 |
| | {學習人員數 | 60人 |
| 婦人講座 | {開催回數 | 40回 |
| | {聽講人員 | 3,700人 |

5. 上略…府內 13個所의 普通學校 校庭을 빌려 夏季巡回 婦人納涼映畫大會를 開催하고 家庭婦人에게 裨益될 映畫及 金剛山 勝景을 上演하여 一場의 快樂을 주는 同時 夏季衛生及 勤儉貯蓄에 關한 冊자를 配付하여 그 觀念을 鼓吹한바 集合人員 延 四萬有餘云云.

6. 秋季以來 朝鮮女子青年會와 相謀하고 朝鮮日報社 後援下에 婦人見學團을 組織하여 府內 各 重要機關(商工業 作業場及 動·植物園)을 見學시킨바 開催回數 7回에 參加人員 9百有餘云云.

그리고 1925年 3月부터는 館內에 少年 教導機關으로서 現代 少年俱樂部를 設置하고 少年運動에도 앞장을 썼으니 實로 多彩로운 行事로써 地域社會와의 紐帶를 強化하고 公共圖書館으로서의 眞面目을 如實히 나타내었다.

紙面 關係로 各 年度別 事業報告는 以上으로써 略述하고 그 運營의 뒷바침이던 財政面을 檢討하여 보겠다.

1923年度決算書

收入

一金 壹萬參千參百七拾參圓六拾四錢也

內 譯

| | 圓 錢 |
|-------|----------|
| 國庫補助 | 1,000.00 |
| 京城府補助 | 1,200.00 |
| 朝鮮教育會 | 1,500.00 |
| 入館料 | 835.14 |
| 閔泳徽氏 | 2,000.00 |
| 張憲植氏 | 100.00 |
| 吳鏡善氏 | 10.00 |
| 設立者 | 6,728.50 |

(1926년에 精米 一石當 37圓13錢이었음)
 (—朝鮮金融事情參考書에서 參照—)

支 出

一金 壹萬參千參百七拾參圓六拾四錢也

內 譯

| | |
|-------------|----------|
| 給 料 | 3,202.50 |
| 館 費 | 2,140.00 |
| 殖産銀行利子 | 2,398.23 |
| 其他諸銀行利子 | 647.51 |
| 諸登記手數料 | 223.50 |
| 圖書·標本及理化學機具 | 4,761.90 |

以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經常費의 50% (年度에 따라 增減은 있지만)를 經營者가 負擔하고 支出의 34%를 負債金의 利子로 支拂하였다. 이것은 事業을 擴張한 始初에서부터 將次 닥쳐올 悲運을 이미 內包한 것이니 그 해 事業報告의 書頭에서 벌써 다음과 같은 苦衷을 披瀝하였다.

京城圖書館을 設立하여 어언 四個星霜이 經過하였다. 多幸히 官·私 各方面의 多大한 援助를 얻어 지금은 內容及 外觀이 多少 充實하고 成績이 大端히 良好하나 元來 經營者 一個人의 努力으로 出發한 것이기 때문에 그 窮乏困難은 經營者가 아니면 到底히 想像조차 할 수 없는 程度입니다. 只今은 圖書館 답게 諸般 施設이 얼마간 完備되었으나

있는대로의 私財는 囊橐을 기우려 아직 도 百尺竿頭에 數步를 나가고 多額의 負債에 呻吟하고 있습니다. 萬若 別途의 收入을 얻지 못하면 功 一篑에 斷한은 勿論 十數萬의 閱覽者에게 不便과 失望을 줄것은 必然之事입니다 云云.

下 略

圖書館事業은 예나 지금이나 支出만의 事業이다. 튼튼한 財政的 뒷바침이 없이는 維持하기가 甚히 困難하다. 經營者도 이에 着眼하여 財團法人의 組織을 꾀한 듯하나 이루지 못하였고 한便 負債額은 每年 조금씩 늘어나 1926年 初에는 37,679圓27錢에 達하였다. 그러는 동안 事業을 때로는 中斷한듯 1924년에는 10月서부터 1月까지 休館하고 1926年 2月 以後에는 長期 休館을 꾀지 못한듯 하며 以上 더 繼續할 수 없게끔 되어 그해 3月 25日宇로 京城府에 讓渡하였다.

비록 아깝게도 設立者의 손으로 持續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施設이 何等의 擴張없이 市營으로 維持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半世紀에 가까운 그동안 數 많은 閱覽者를 爲하여 貢獻한 것은 事實이다. 李範昇氏가 다른 文化事業은 제쳐놓고 當時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荒蕪地였던 圖書館事業에 着眼하였다는 것은 特記할 事實로써 氏의 말에 依하면 總督을 비롯하여 總督府高官들의 來訪이 數次 있었으며 特히 齊藤實總督은 實況을 視察하고 記念撮影까지 한바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當時 日本新聞들의 論調가 辛辣하여 “1個 白面 書生인 李範昇이가 私財를 들여 圖書館을 經營하는데 朝鮮總督府는 무얼하고 있는가”라고 針을 놓았다고 한다. 이에 刺戟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後 中央

에 總督府圖書館(現國立)과 各地方에 公立圖書館을 設置하였던 것이다. 京城圖書館의 歷史의 意義는 以上 敘述한 事業에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當時의 爲政者들에게 圖書館이 文化事業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을 똑똑히 알려준데 있지 않은가싶다.

이제 大端히 粗雜하나마 京城圖書館의 略史를 大略 檢討해 보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重要한 敎訓을 찾지않으면 안된다 要約해서 圖書館事業이란 當場 經理上으로는 收入은 없고 支出만 하는 文化事業이므로 그 運營을 뒷바침하는 別途의 財政的 計劃이 없이는 길이 維持하기가 困難하다는 點이다. 文化事業이 大概 그러 하지만 有償敎育施設인 中高等學校나 大學校와도 또 다르다. 圖書館은 無償敎育

인 義務敎育施設과 마찬가지로 國家 或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써 實施하는 事業이 되어야 한다. 現下 우리나라와 같이 義務敎育施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實情下에서는 圖書館의 發展을 바란다는 것은 至極히 어려운 問題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國家의 將來를 爲하고 國民文化 向上을 企圖한다면 이 分野가 忘却된 제로 버려져서는 안된다는 것도 事實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圖書館事業이 發展되려면 于先 爲政當局의 誠意있는 理解가 必要하고 다음으로 貧弱한 財政에서나마 여러모로 짜내어 年次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推進하는 確固한 政策이 必要하다.

(筆者: 市立鍾路圖書館長)

學術活動의 열쇠! — 研究와 調查活動의 情報源 —

學術雜誌索引 1960 (既刊)

1960年度 國內에서 發刊된 學術雜誌 論文 10,240篇의 記事를 索引하여 收錄한 우리나라 初有의 綜合的인 定期刊行物의 索引集이다.

<模造洋裝 4.6倍版 414面 叢 會員 800원, 一般 650원, 外國 12弗>

學術雜誌索引 1961~1962 (刊行)

1961~1962년에 國內 學術雜誌 353種에 發表된 19,282篇의 論文을 索引하여 著者名 과 主題名을 混合配列

6月 25日 配布

<模造洋裝, 4.6倍版 約 800餘面 叢 會員 2,000원, 一般 2,500원>

敎育機關, 各級學校, 會社, 圖書館, 研究機關, 學術研究家에게 必備의 圖書.

購入을 希望하시는 分은 本協會로 注文하시얏.